

이승훈 건재·차민규·김민석 성장...한국 빙속 미래 밝다



19일 강원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34초42로 은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차민규가 레이스를 마친 후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민규 500m 올림픽 신기록에도 0.01초 뒤진 은메달

‘말형’ 이승훈 1만m 한국신·김민석 1500m 2위 첫銅

한국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미래가 밝다. ‘말형’ 이승훈(대한항공)의 분전 속 ‘동생’ 김민석(성남시청), 차민규(동두천시청)가 깜짝 메달 행진이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알렸다.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팀이 연일 기대 이상의 성적을 쏟아내고 있다.

시작에는 대표팀의 ‘말형’ 이승훈이 있었다.

이승훈은 남자 5000m에서 중간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기대를 뛰어넘은 5위의 성적을 작성했다. 이승훈은 또 1만m에서 12분55초54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지난 2011년 자신이 작성했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4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이승훈이 불을 지핀 대표팀의 레이스는 김민석이 가속도를 붙였다.

그는 남자 1500m에서 1분44초93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올림픽 1500m

이상대에 올랐다.

차민규의 질주는 더욱 놀라웠다.

차민규는 지난 19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를 34초42에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차민규가 작성한 34초42는 올림픽 신기록이었다.

금메달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후 등장한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34초41)이 다시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바람에, 차민규의 메달 색이 바뀌었다. 금메달과 은메달까지의 차이는 불과 0.01초였다.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지만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던 차민규의 눈부신 질주로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미래는 더 밝아졌다.

올림픽 무대를 통해서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일린 남자 대표팀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더 남아있다.

한국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중심인

이승훈이 후배들을 이끌고 남자 팀추월 사상 첫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승훈은 ‘동메달리스트’ 김민석, ‘17살의 막내’ 정재원(동북고)과 남자 팀추월 대표팀을 꾸려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4강전을 벌인다. 이 경기에서 한국이 뉴질랜드를 앞서면 은메달이 확보된다.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지휘했던 이승훈은 안방에서 더 높은 자리를 올려본다. 이승훈과 김민석이 이번 대회 스타트를 잘 끊었고, 앞선 경기에서 ‘관중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언급했던 만큼 뜨거운 응원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다.

대표팀은 18일 열린 8강전에서 ‘장거리 빙속 황제’ 스벤 크라머가 이끄는 네덜란드를 누르고 전체 1위로 4강에 진출했다. 덕분에 까다로운 네덜란드와의 대전을 피해 4강전을 치르게 됐다.

팀추월에 있어서 이승훈과 정재원은 매 스타트에서 다시 한번 시상대를 노린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한국 차민규가 20일 강원도 평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팀추월 인터뷰 논란 김보름 “진심으로 죄송”

결승행 실패 후 부적절 발언...사과 기자회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예선전 경기를 마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보름(강원도청·25)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보름은 20일 오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여자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팀은 전날 8강 경기에서 팀워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마지막 주자의 기록이 공식 기록이 되는 팀추월 경기지만 김보름은 박지우와 선두 자리를 맡다가 뒤로 빠지면서 속도가 떨어진 노선영을 두고 달리며 논란이 됐다. 여기에 김보름은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뒤에 (노선영 선수와의) 기록이 좀 아쉽게 나왔다”고 피식 웃기도 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김보름은 “선수 모두 3위를 목표로 했고 그러려면 1차적으로 4강에 진출했어야 했



한국 김보름 선수가 20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6바퀴 중에 3바퀴를 앞에서 돌아야 했던 제 욕심에 마지막 바퀴에서 29초를 끊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뒤쳐진 (선영) 언니를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보름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백철기 감독은 전날 대표팀이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은 코치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백 감독은 “노선영이 뒤쳐졌다는 사실



19일 오후 강원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한국의 박지우, 김보름이 레이스를 이끌고 노선영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을 링크 안에서 선수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경기 직후 선수들이 서로 어색해 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도 지도자분이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감독은 “아직 우리에게 매스스타트라는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는 만큼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길 부탁 드린다”며 “가장

어린 박지우 선수는 지금 몸을 떨기까지 할 만큼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보름은 10분 넘게 참아왔던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김보름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선영(콜빙팀·29)은 감기몸살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한국 봅슬레이 ‘평창 올인’ 毒 됐다

월드컵 8회중 3회만 출전...세계랭킹 추락 하위팀 맨 마지막 배정...부진 끝 6위 그쳐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의 원윤종(강원도청), 서영우(경기BS경기연맹)의 ‘평창 올인’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원윤종-서영우는 지난해 12월 9일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4차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총 8번의 월드컵 가운데 마지막 대회를 제외한 7번에 참가한 뒤 올해 1월 중순 귀국해 평창 트랙에서 훈련하겠다는 게 당초 대표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독일 월드컵 출전 명단에 두 선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대한 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관계자는 “국제대회에서 경험을 쌓는 것보다 평창 트랙을 한 번이라도 더 타보는 것이 올림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귀국 소식을 전했다.

결국, 총 8번의 월드컵 중에서 초반 3번의 대회만 치른 원윤종-서영우는 이후 추가적인 실전 경기 없이 곧바로 올림픽 무대에 섰다. 월드컵에서 포인트를 쌓지 못하면서 이들의 세계랭킹은 올림픽 출전 30개 팀 가운데 최하위인 46위로 추락했다. 이는 올림픽에서 독이 돼 돌아왔다.

18일 남자 봅슬레이 2인승 1차 시기에서 원윤종-서영우는 세계랭킹 하위팀들 간 추첨 결과 맨 마지막인 30번째 주자로 배정됐다.

한 설매 전문가는 경기 시작 전 스타트 리스트를 보고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며 “결국 홈 이점도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됐다”고 개탄했다.

일반적으로 설매 종목에서는 출발 순서가 뒤로 밀릴수록 불리하다. 경기를 치를수록 설매 날에 의해 트랙 위의 얼음이 짙고 파이면서 노면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스위스인 봅슬레이 심판위원장도 경기 시작 전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상위권에 오르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파일럿’ 원윤종이 매끄러운 주행에 실패, 얼음 벽에 수차례 부딪히면서 1차 시기 최종 기록은 전체 11위에 해당하는 49초50에 그쳤다. ‘올림픽 금메달’만을 바라보고 8년을 달려온 원윤종-서영우의 꿈이 사실상 이렇게 좌절됐다.

두 선수는 남은 3차례 주행에서 각각 49초39(3위), 49초15(5위), 49초36(5위)으로 기록을 끌어올렸지만 이 역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결국, 원윤종-서영우가 받아온 평창올림픽 최종 성적표는 6위다.

물론 이는 한국 봅슬레이가 올림픽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하지만 ‘홈 이점’을 살려 금메달을 따겠다는 당초 원대한 목표를 고려하면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이들의 도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원윤종, 서영우는 김동현·전정린(이상 강원도청)과 팀을 이뤄 24~25일 열리는 봅슬레이 4인승 경기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시청률 합격점 전 세계 50억명 시청 할 듯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TV 시청률이 전 세계적으로 호조를 보인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발표했다.

티모 루미 IOC TV·마케팅 운영국장은 2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OC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동 일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 인구 50억 명이 TV로 평창올림픽을 시청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방송 시간은 4년 전 소치 대회 때보다 14%가 증가했다.

루미 국장은 지난 9일 개회식을 전 세계 3억 명이 시청했다면서 한국에서만 1000만 명이 봤다고 소개했다. 그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여는 일본과 중국에선 각각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종목 TV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IOC는 또 미국 내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NBC의 프라이머 타임 시청률이 경쟁 방송 시청률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다고도 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NBC의 대회 첫 주 프라이머타임 시청률이 소치 대회보다 줄어들었지만, 뉴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선전할 편이라는 NBC의 평가를 함께 전했다.

/연합뉴스